

지성인 마누엘 아사냐에 관한 연구

권 미 란*

I. 서 론

스페인 제 2 공화국은 1931년 4 월 12일 국민들의 환영과 기대속에 출발한다. 아직 세계공항의 여파가 남아있고 주변국가들의 독재와 보수주의 체제구축으로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순탄하지 못한 스페인운명이 예고되었다. 그런상황에서 스페인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도약하는데 빼놓아서 안 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사람은 바로 마누엘 아사냐 (Manuel Azaña)이다. 스페인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부터 1940년 프랑스의 몽또방 (Montauban)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이미지는 인테리, 지성인이었다. 그것은 아사냐가 문인이며 변호사 출신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변함없는 소신과 행동으로 사회, 문화, 제도상 문제가 되는 분야를 과감한 개혁으로 기득권층의 반발과 불만을 야기시켰고 스페인 좌익계를 대표하는 프랑스 정치 연구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쿠바와 모로코 사태로 수 많은 스페인지성인들이 갈등과 염세주의로 임할 무렵 아사냐는 생을 진지하게 다루며 생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관찰과 연구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형적이면서 낙천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집권한 1931년부터 1933년 사이를 아사냐의 이년 (Bienio Azañista)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가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뜻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2 이베로아메리카 제4집

2 공화국의 핵심자리인 국방부장관과 수상직을 역임하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본고는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자신의 지성적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 정치 또는 개혁적인 정치를 실생활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아사냐를 정치인이기 앞서 지성인으로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II. 지성인으로서의 평가: 지성의 역할

아사냐에게 지성인이라는 평가는 오히려 자신의 활동이나 태도표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 활동영역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했으나, 아사냐는 오히려 그점을 자신의 나태함을 방지하는데 이용했다. 그 지성인이기에 일상사에서 사물이나 이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평범한 논리에 맞서 투쟁하였다. 그는 지성인이라면 일단, 삶 그자체를 문제화시켜야 된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사회가 그의 비판을 이해해 주고 동조해주기를 바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사냐는 지성인은 역동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현실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외견상 모습에 따라 편리한 시각으로 정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정치연설문에서 우리는 순수한 지성인 아사냐가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성있는 정치인이기에 아사냐는 구체적인 안건에 이지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신의 특유한 즉흥적인 연설은 주로 문제를 둘러 싸고 있는 군더더기의 내용을 제거하며 문제만을 두각시키면서 열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만약 토의하는 대상이 즉흥적인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아사냐는 신속히 다음단계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함과 동시에 예상하고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토의를 이끌어 가는 재치를 지녔다. 또한 자신의 계획에 따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압축시켜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한 예로, 1931년 그의 수상시절 헌법제정시 특히 26조항 즉 까탈루냐(Cataluña)지방 자치법령도 아사냐의 창조적인 연설로 반대편의 정치인들을 찬성으로 이끌어 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지성인들은 그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오소리오이 가야르도(Ossorio y Gallardo)는 아사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말한다.¹⁾

“아사냐는 재능이 있는 인물이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전적으로 재능이 있는 그가 지난 모든 것이 재능이다.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은 연구와 정보를 통해 알게된 것이다.”

헤수스 빠본 (Jesús Pabón) 역시 아사냐를 스페인 공화당의 지도자로서 지성적 문화의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했지만²⁾, 호아킨 아라라스 (Joaquín Arrarás)는 아사냐를 두고 이 사회의 미학적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지성인이자 고전학자라 평했다.³⁾ 반면, 아사냐가 정치적 어려움에 접한 지성인이라 평하는 역사가인 휴 토마스(Hugh Thomas)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

“그시대 중산층 출신의 지성인....크롬웰(Cromwel)과 워싱턴(Washington)을 존경하는 아사냐는 스페인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에 걸맞는 가치로 측정하지 않도록 이끌어 간 초인간적인 냉정성과 지성인으로서의 순수함을 겸비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인물이다. 그래서 적들은 아사냐를 공격하길 원할 때 그가 지난 개인적인 수치심을 이용해야 했다.”

1) Luis Ossorio y Gallardo, *Mis Memorias*, Madrid, Tebas, 1975, p.201.

2) Jesús Pabón, *Cambó*, T.II, Barcelona, Alpha, 1952, p.69.

3) Joaquín Arrarás, *Historia de la II República Española*, T.I., Madrid, Ed.Nacional, 1969, p.42.

4) Hugh Thomas, *La Guerra Civil Española*, París, Ruedo Ibérico, 1967, p.22.

4 이베로아메리카 제4집

이처럼 아사냐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일기장에서 곤경에 빠진 지성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아사냐가 지성인으로서의 성품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 시대가 끝난뒤 나의 최고 기쁨은 정치를 산책이후로 미루고
책속에 빠져 드는 것이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존재는 어리석음이다.”

1. 지성의 역할

위에서 언급하는바와 같이 아사냐에게 있어서 지성은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성은 그가 진정한 사명감이라 생각하는 작가라는 의식에서 나타난다. 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글을 접하면 지성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그시대의 위기에서, 즉 1898년의 스페인의 참패와 1917년 정치제도의 붕괴속에서 거의 많은 지성인들의 염세주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아사냐는 개방적이면서 포용적인 글들로서 대중앞에 나섰다. 정치인으로서 변모한 그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표현을 비껴가는 이지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론에 바탕을 둔 행동을 현실에 옮기고 싶어했고, 항상 지성인으로서 비판적인 자세로 확실한 계획을 사회에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면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현실화하는데에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⁶⁾ 아사냐의 일인 이역, 즉, 지성인과 정치인이라는 두 개의 얼굴로 동일한 무대인 스페인을 배경으로 활약해야하는 곤란함도 느꼈다. 하지만 아사냐는 기꺼이 지성과 행동을 겸비한 역할을 택했다.

지성인에 대한 견해를 관찰하기 위해 아사냐와 동시대에 활약한 스페인 최고에 속하는 지성인이다 1914년 세대(Generación de 1914)의 기수 역할을 도맡은 호세 오르tega가 이 가셋 (José Ortega y Gasset) 과 아사

5) Manuel Azaña, Obras Completas, T.IV., México, Oasis, 1966-1968, p.351 y 391.

6) Manuel Azaña, Op.Cit., T.III, pp.5 y ss.

냐를 비교해 보았다. 오르떼가 이 가壑는 지성인을 보통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피는 사회의 지도자로 인식하며 단순히 지성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적인 인물로서 플라토닉한 역할을 부여했다.⁷⁾ 오르떼가 이 가壑이 지성인을 구경꾼인 수동적인 자세를 갖추었다고 표현 하지만 아사냐는 지성인을 정치 일선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겼다. 지성인은 진실을 캐내기 위해 전문적이면서 혁신적으로 몰두 할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아사냐는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꾸려 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에 이미 제시된 계획안에 따라 끝까지 변화를 추구하기를 희망했다. 다시 말해서, 아사냐는 오르떼가 이 가壑이 요구하는 지식의 전문성 또는 지식을 안내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논리와 합리성이 따르는 계획을 가지고 사회에서 실행하는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아사냐의 행동은 때때로 이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가정이기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루이스 보딘(Louis Bodin)은 모든 지성인은 국민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지배 계층의 이념체계에 합류되기를 원한다고 역설했다.⁸⁾ 보딘이 언급하는 통제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아사냐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한 시도는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즉 정치 현실에서 지성을 통해 단순하게 관찰하기 보다는 지성을 응용해 얻어낸 이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지성인은 모두 확고한 도덕성에 근거한 행동만이 정당화 된다고 여겼다. 그것은 곧 지성과 정치라는 이항식이 도덕성위에 움직이어야 사회를 계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성의 바탕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 즉 전통이라는 믿음으로 전달되고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성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31년 처음으로 정권을 얻을 당시, 아사냐는 정치를 지성에 의해 수정된 전통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된다.

7) Cfr. José Ortega y Gasset, Obras Completas, T.X: Escritos políticos(1908-1921), Madrid, Rev. Occidente, 1969.

8) Louis Bodin, Los intelectuales, Buenos Aires, Ed.Universitaria, 1965, p.55.

2. 지성의 의미 :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향

흔히들 마누엘 아사냐를 독창성 없이 프랑스를 모방하려는 지성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들린다. 스페인은 18세기이래 프랑스의 보르본(Borbón)왕가의 취향과 거듭 체결되는 조약들로 이웃나라의 영향권안에 놓였다. 또한 20세기 초에 전립된 제2공화국도 과거 프랑스의 침략이 빚어 낸 정치적 결과로 본다면 아마도 아사냐는 프랑스를 흡모하는 제2공화국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된다. 그 역시 자신의 성장과정을 프랑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적의 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아사냐는 프랑스적 문화 자산을 성숙한 의식을 갖고 받아 들였다. 특히 그의 글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인 데스까르테스(Descartes)의 합리주의 이론을 접할 수 있다. 자신의 문학 작품, 정치연설문, 일기 등에서 완전히 데스까르테스에 매료된 추종자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따라서 이처럼 이웃나라를 동경하고 프랑스의 문학에 매료되었던 아사냐에게 친불파라는 명칭이 따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프랑스란 단어는 아사냐의 생활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에게는 프랑스는 자유를 뜻하기도 하고 까스띠야(Castilla)지방의 지겹도록 단조로움에서 멀리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사냐에게 있어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색 다른 감각과 문화를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그는 스페인과 프랑스 두나라가 문학의 동일한 모체, 즉 로마주의(romantismo)에서 파생되었기에 서로가 동화됨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었다. 상이한 민족사이에 수백년 동안 함께 한 종교, 법률, 사상 등의 요소에 의해 동질감을 나타낼 수 있기에 스페인이 이웃나라인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드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다.⁹⁾

9) Manuel Azaña, Op.Cit., T.I, p.82.

“수세기간 함께 해온 동일한 종교, 동일한 법, 예술적이상과 철학적사상은 타민족들 사이에서 동질성을 표시할 수 있는 틀이 아닐까? 이런요소들은 끝으로 덧붙이자면, 남녀교육제도를 이끌어내는 유사성이 협육관계를 승복시키는데에 결정적으로 역할한다. 나는 프랑스의 영향을 오히려 우리민족을 욕보이는 수치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사냐의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 문화를 포용하는 전통을 지속하자고 주장하는 스페인 인물들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중세기 초기에는 스페인 종교 예식이 프랑스의 클러니(Cluny) 와 엘 시스페르(디 Cister) 수도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스페인이 동양문화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에서 대표되는 프랑스문화를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사냐는 스페인의 단점을 타파하려고 프랑스의 문화를 선택하고 동화되기를 바랬다. 프랑스의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수동적 입장에서 관찰해 온 다양한 분야의 글을 스페인 언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라 코레스쁜덴시아 데 에스빠나(La Correspondencia de España), 엘 임파르시알(El Imparcial), 에스빠나(España), 라 플루마(La Pluma)에서 아사냐는 마르틴 피뇰(Martín Piñol)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글 속에서 타문화의 영향을 받도록 놔두는 것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을 지었다.¹⁰⁾ 아사냐의 작품 엘 하르딘 데 로스 프라일레스(El jardín de los frailes) 는 자신의 유년기를 생각하며 쓴 것이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꺼내 온 프랑스 책들의 제목들을 거론한다, 비록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같은시기에 프랑스 작가들의 스페인에 관한 논평을 실을 작품을 발간할 의도도 가졌고 1919년에는 프랑스 정치 연구(Estudio de política francesa)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프랑스 잡지 유럽(Europe)에 아사냐는 스페인 독재에 관한 글을 기고했고 같은 글을 1924년 1월 우리들(Nosotros)라고 불리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잡지에 서명하지 않

10) Ibid, p.83.

은채 재발간했다. 이와같이 프랑스에 관련된 글들은 아사냐의 삶에 있어서 영구적이면서 열정적인 테마이다. 그렇다고 그글들 속에 반영된 스페인 정신은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의 프랑스에 대한 열망은 국내의 일부 국수주의자들에게 스페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사냐가 동시대에 독일에서 교육받은 스페인 지성인들과 큰 시각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불파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공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아사냐는 스페인 문화의 본질 (*entidad*)을 잘 이해하며 동화되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전형적인 스페인 사람이라 자처한다. 18세기에 활약한 지성인들에게서 보였던 믿음이 아사냐에게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지성을 토대로 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 계몽에 전력을 다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아사냐는 뼈리모 데 리베라(*primo de Rivera*)의 독재정권을 신랄히 비판했고 그정권을 마치 지성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다.

후안 마리찰(Juan Marichal)은 아사냐와 18세기의 계몽주의자인 호베야노 (Jovellanos)와 연관시키고 호베야노와 플로리다블랑까를 반친불파 (anti-afrancesados)로 평가하며 아사냐의 고국에 대한 열정을 친불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범주안에 포함시킨다.¹¹⁾ 아사냐는 스페인 친불파들이 나폴레온(Napoleón)의 군주제를 인정하며 스페인의 구 정치제도를 탄파하고 친불파들이 만들어 낸 바요나(Bayona)의 헌법을 승인한 사건을 스페인의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겼다.¹²⁾ 아사냐의 이러한 생각은 염연히 프랑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애국주의자들을 존경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미 침략자인 프랑스의 홀륭하고 합리적인 정치개혁을 평가

11) Cfr.Juan Marichal, *La Vocación de Manuel Azaña*, Madrid, Alianza, 1982.

12) Manuel Azaña, Op.Cit.,T.I., p.82.

하기 이전에 국가의 위기로 인한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스페인 교회에서 국민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 준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사냐는 국내에 주요한 정치 사상가의 부재로 스페인 계몽주의를 승화시키지 못한 채 친불파들이 이루어낸 개혁들이 독창성없이 단순하게 프랑스이념을 번역하는데 그쳤다고 보았다.

안또니오 메스뜨레(Antonio Mestre)에 의하면, 계몽주의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몽주의와 실질적인 계몽주의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전자보다 지성적인 면이 약하지만 독창적인 스페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¹³⁾ 칼빈의 영향보다는 에라스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계몽주의를 전파한 지성인들에는 비베스(Vives), 세르반떼스(Cervantes), 사아베드라 파하르도(Saavedra Fajardo), 후안 발데스(Juan Valdés), 아리아스 몬따노(Arias Montano), 후라이 루이스 데 레온(Fray Luis de León)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바로크주의와 계몽주의 사이에 교량역할을 맡아 온 에라스모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바로 1914년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에게 일상사에 있어서 인내와 포용이라는 사상을 주입시켰다. 마누엘 아사냐를 그들과 같은 지성인으로 판단한다면 친불파라는 의미를 초월하여 스페인적 계몽주의 군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아사냐는 임기중에 때로는 강압적으로 관용과 존중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국가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아사냐의 여러 연설문에서 그와같은 취지를 잘 발견할 수 있듯이 그의 국가론은 정권을 잡기 이전의 시기인 1920년대까지 주장해 온 것과 다르며 사회변화 주인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혁주의론자들과 대치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까탈루냐(Cataluña)지방 자치법 통과를 위한 연설문에서 19세기 절대

13) Antonio Mestre, *Despotismo e Ilustración en España*, Barcelona, Ariel, 1976, p.45.

14) Cfr. Antonio Elorza, *La Ideología liberal en la Ilustración española*, Madrid, Tecnos. 1970.

군주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립전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초기 자유주의 발전에 있어서 강한 정치력과 중산계급의 부재가 전쟁과 같은 사건을 야기 시켰으며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계몽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위대한 현대국가를 창설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데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국민은 계몽주의적 전제주의 정치이론을 확립하고 보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는 권력을 통해 자유와 발전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사회의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아란구란(Aranguran)이 “도덕과 사회”(Moral y Sociedad)라는 저서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하다고 완전히 믿는다. 계몽은 진정한 교육적-윤리적인 일로서 경험되어야 한다>¹⁶⁾고 말하고 있듯이 아사냐가 전형적인 계몽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쳐지지만 그의 지적, 정치적 활동은 교육학적 의미에 더욱 더 가깝다고 보겠다.

아사냐는 연구 확대 위원회(Junta de Ampliación de Estudios)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호세 카스띠예호(José Catillejo)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더 높은 차원의 정치학을 연구 할 기회를 갖게 된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실생활에서는 그가 완성한 이론처럼 적용되지 않고 권력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변이 발생하여 교육적-윤리적이라는 의미가 허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III. 아사냐의 성향 : 보수주의와 혁명주의

마누엘 아사냐가 스스로 지성인이다 정치인이라고 말하듯 그는 지성

15) Cfr. Richard Herr, *España y la Revolución del siglo XVIII*, Madrid, Aguilar, 1971.

16) José Luis Aranguran, *Moral y Sociedad*, Madrid, Edicusa, 1970, p.18.

인의 정치 드라마와 정치인의 지성 드라마에 동시에 출현했다. 이들 드라마속에서 그가 순수한 보수주의 인물이 되었다가도 때론 변화를 모색하는 혁명가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사냐를 둘러 싸고 성향을 분석 평가하여 본다면, 우선 후안 페이رات(Juan Peirats)은 아사냐정부의 농업개혁을 “잘난 척하는 자의 작품”<*quintaesencia de la pedantería*>이며 “18세기 스페인 음모를 꾀하는 자들의 바보같은 짓”<*disparate digno de los arbitristas españoles*>라고 평가 절하시킨점을 주시할 수 있으며¹⁷⁾, 부예호스(Bullejos), 호세 디아스(José Díaz), 까노바스 세르반떼스(Cánovas Cervantes)와 같은 지성인들은 아사냐를 우파성향이 짙은 인물로 간주했다.¹⁸⁾ 이와는 달리 곤살레스 루이스(González Ruiz)는 아사냐를 구세주교에 도달할 만큼 혁명적인 인물이라 평했다.¹⁹⁾

아사냐를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성향 분석이 있지만, 일단 그는 지난 18세기를 상기시키는 인물이라 보겠다. 1700년 이후 스페인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험한 일부의 문화가 전개되지 못했다. 아사냐는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15세기와 16세기에 활동한 스페인인들을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전통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계몽주의 사상에 스페인 현대적 감각의 전통을 접목시켜 실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유주의 전통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는 전통과 혁명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들 사이에서 움직인 것이다. 첫째로 아사냐는 스페인이 완전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부르죠아 혁命을 경험한 것을 알기에 명백히 보수주의 토대를 내세운다. 두 번째로는 그는 새로이 부상한 부르죠아 계급안에는 진정한 혁명적

17) José Peirats, *Los anarquista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Júcar, 1976, p.71.

18) Cfr. José Bullejos, *La Comintern en España(Recuerdos de mi vida)*, México, Porrua, 1972; José Díaz, *Tres años de lucha*, Bucarest, Col. Ebro, 1974; S. Cánovas Cervantes, *proceso histórico de la revolución española*, Madrid, Júcar, 1979.

19) Nicolás González Ruiz, *Azaña(Sus ideas religiosas, sus ideas políticas, el hombre)*, Madrid, Gráfica Universal, 1932, p.130.

정신이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것은 농업혁명과도 같은 정치혁명이 봉건주의제도의 잔재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세속화시키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혁명이 뒤따라 발생하지도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전례를 상기하여 그토록 기대했던 1931년 혁명이 발발했을 때에도 아사냐는 군주제와 공화제의 제도상의 대립으로 매듭짓고 싶어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긴급한 구조적 변화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식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부르죠아계급은 혁명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공화제에 관해 언급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을 피하지만 공화주의에 관해 언급을 한 것이다.

아사냐와 공조를 이룬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사냐와 같은 인물을 거쳐 개혁 속도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아사냐는 스스로가 만든 덫에 걸린셈이 되었다. 그는 단지 국민에게 허구(utopia)를 보장하는 지성인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야심으로 의도적으로 혁명가의 얼굴이 되었다. 순조롭게 혁명이 전개되길 바랬기에 사회주의자들과 2년 반동안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파 정치인들에게는 반감을 불러왔고 그들에게는 아사냐는 현실이 수용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는 허구주의자로 비추어졌다. 그런데 이훌륭한 허구주의자가 정치현실에 혁명적이면서도 보수주의적 요소를 가미시켰다. 때때로 나타나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아사냐가 취한 이중적태도로 인해 생겼고 긴 안목으로 보아 모두가 아사냐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즉 그가 개혁을 이루기에 시대가 요구한 인물이었기에 혁명가라는 명칭이 따르지만 실현이 미지수인 개혁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허구성을 보여준 것이다.

띠에르노 갈반 (Tierno Galván)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사냐는 현대에서 스페인전통의 합리주의적 요소만을 포용하는 완벽한 보수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전통주의자는 될 수 없었다.²⁰⁾ 아사냐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약속한 혁명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점은 그자신이 지성인

이지만 혁명가로서 지성인과 큰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아사냐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공화국은 정치적 혁명이 요구되지만 그의 집권시절은 혁명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모든 경제, 사회의 중심은 제 2 공화국시대의 이전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아사냐 역시 심도깊은 혁명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지성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집권 동안 이루어낸 최고의 혁명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농업개혁이었다. 그것은 그들과 연합하여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모든 혁명은 새로운 법에 의해 승인과 재가라는 절차가 따른다. 새로운 조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성숙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아사냐는 현실에 직면한 스페인 사회가 반혁명적이면서 역사에 거슬리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메시지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사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이 꿈꾸는 시기를 현실적인 세계시간에 맞추었다. 지속적으로 우파들의 과거의 정치가 요구되고 좌파들의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을 요구되자 아사냐는 두 개의 잣대로 현실를 재는 가상적인 혁명가에서 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이 됨으로서 주위에서 이해하기 힘든 지성인이 되었다.

IV. 결 론

중류계급출신의 지성인인 마누엘 아사냐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는 스페인 인테리이다. 그는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공화국시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제도를 이용

20) Enrique Tierno Galván, *Tradición y Modernismo*, Madrid, Tecnos, 1962, p.76.

하여 혁명적 과업을 실현하고자 누구보다도 앞장 서 왔다. 문화적 혁명을 목표로 삼아 국민이 자유주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지성적인 정부가 들어 서야 된다고 생각했다.

<신중하지 못한 민족은 결코 배우지 못한다. 이따금 지속성 없이 표현되는 문화로 인해 불행스럽게 오랜 세월을 버텨온 민족은 미숙하다>²¹⁾라고 표현하듯이 아사냐의 지성적인 정부를 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아사냐는 혁명으로 자유를 터득한 국민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죄선을 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국가에는 반지성적인 정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문화혁명은 다른 혁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목표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의 세속화에 관심을 보였다. 마누엘 아사냐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교육의 세속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스페인 현실에서 종교단체가 국민의 교육을 도맡아 하고 국민의 양심을 조정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벌이는 교육사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교회가 교육분야에서 차지한 공간을 빼꾸는데 있어서 민간 또는 사설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아사냐는 국가가 앞장서 교육의 세속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혁명 속에서 사회의 응집력 구실을 하는 이념을 갖게되고 정치와 국가를 한 차원 높이는 국민적 가치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회구성원의 참여로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사회적인 믿음을 정착시키고, 아사냐의 공화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에는 개방적이면서 포용적인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마누엘 아사냐는 공화제를 통해 보수주의적 사고를 지닌 부르조아적 지성인이란 위치에서 모두를 수궁시켜 혁명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자신의 동료들인 지성인들을 포함하여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주의자

21) Manuel Azaña, Op.Cit., T.I., p.551.

들과 부르조아출신들을 설득하려 했다. 아사냐는 모두에게 공화제에서 꿈꾸는 온건한 혁명들이 스페인이 교양과 번영을 누리는 유럽국가들의 수준에 다가서는데 필요한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 것이다.

마누엘 아사냐는 공화제기간동안 스페인의 변화시도에 동반되는 현상을 목격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었고 소설가 바로하(Baroja)의 <지성인의 운명은 유토피아 안에서 끝난다>라는 표현대로 아사냐의 운명은 허구속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참고문헌

- Arangurán, José Luis(1970), *Moral y Sociedad*, Madrid, Edicusa.
- Arrarás, Joaquín(1969), *Historia de la II República Española*, T.I., Madrid, Ed. Nacional.
- Azaña, Manuel(1966–1968), *Obras Completas*, México, Oasis.
- Bodín, Louis(1965), *Los intelectuales*, Buenos Aires, Ed. Universitaria.
- Bullejos, José(1972), *La Comintern en España(Recuerdos de mi vida)*, México, Porrua.
- Cánovas Cervantes, S.(1979) *Proceso histórico de la revolución española*, Madrid, Júcar.
- Castillejo, José(1976), *Guerra de ideas en España*, Madrid, Rev. Occidente.
- Díaz José(1974), *Tres años de lucha*, Bucarest, Col. Ebro.
- González Ruiz, Nicolás(1932), *Azaña(Sus ideas religiosas, sus ideas políticas, el hombre)*, Madrid, Gráfica Universal.
- Herr, Richard(1971), *España y la Revolución del Siglo XVIII*, Madrid, Aguilar.
- Marichal, Juan(1982), *La Vocación de Manuel Azaña*, Madrid, Alianza.

Mestre, Antonio(1976), Despotismo e Ilustración en España, Barcelona, Ariel.

Ortega y Gasset, José(1969), Obras Completas, T.X, Madrid, Rev. Occidente. Ossorio y Gallardo, Luis (1975), Mis Memorias, Madrid, Tebas.

Pabón, Jesús (1952), Cambó, T.II., Barcelona, Alpha.

Peirats, José(1976), Los anarquista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Júcar.

Thomas, Hugh(1967), La Guerra Civil Española, Paris, Ruedo Ibérico. Tierno Galván, Enrique(1962), Tradición y Modernismo, Madrid, Tecnos.